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와 과제¹⁾

Familie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the Older Koreans

이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은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의 변화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형태 및 규모), 기능적 측면(접촉 실태 및 지원 교환), 인식적 측면(부양 가치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단독 가구의 보편화, 자녀 중심 관계망 축소 및 동년배 중심의 관계망 다각화, 자립적인 노후 생활 가치관 증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강화, 공적 돌봄 체계의 강화, 동년배 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 노후 준비 등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노인 삶의 질의 근간이 된다. 특히 가족을 둘러싼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축적되는 결과물로서,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에 따라 노년기 삶의 양상에 차

이가 생긴다. 사회적 관계는 자아를 중심으로 친밀도에 따라 동심원 형태로 구분되며(Kahn, Antonucci, 1980), 근접성에 따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혈연관계와 친구나 이웃 등의 비혈연 관계가 위치하게 된다. 이 같은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의미를 넘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누적적으로 다각적인 영향을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과 제5장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미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 이전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변화 추이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형태·규모와 관련한 구조적 측면, 접촉 및 지원 교환 실태와 관련한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관계망의 형태적 측면을 넘어 실제로 노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관계 형성의 기저가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가치관이 사회적 관계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적 관계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 논의에까지는 닿지 못하지만,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의 가구 형태와 노년기의 주요한 관계망

가. 가구 형태

노인의 가구 형태는 사회 및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변화한다는 점에서 시계열적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조사를 바탕으로 노

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본 결과, 78.2%는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는 단독 가구(노인 독거 및 노인 부부) 비율이 68.1%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가구 형태가 한시적 현상이 아닌 일반적 양상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0년 조사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20.1%에 불과하며 2011년 27.3%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3%²⁾로 이전 조사인 2017년의 10.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곧 부모-기혼자녀 간 확대가족 비율이 점차 줄어들음을 뜻하며, 전통적 부양가치관의 약화 추세와 맞물리는 결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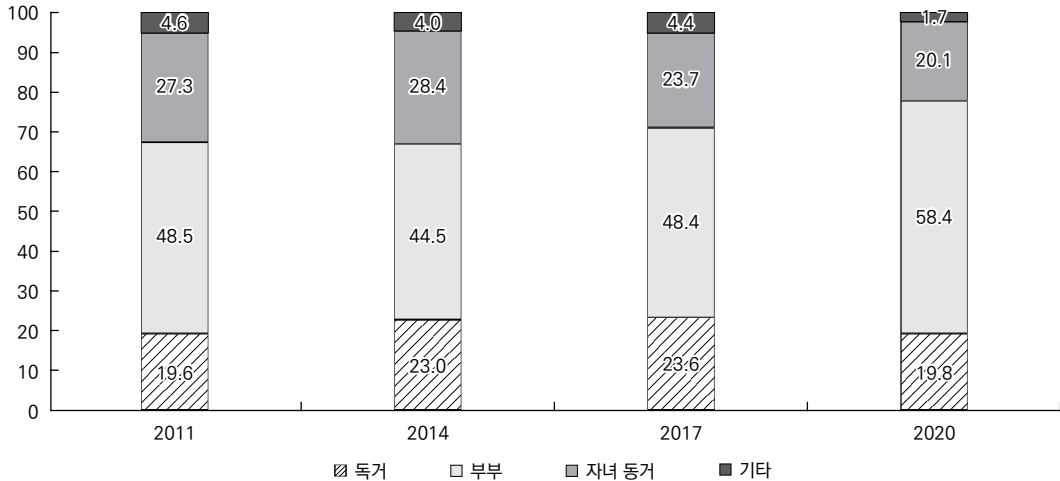
우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즉 단독 가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녀가 결혼으로 분가를 해서 28.3%,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19.9%, 기존 거주지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해서 18.2%,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12.7%, 건강해서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욕구나 독립성에 기인한 응답³⁾이 62.0%로 2008년 조사의 39.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박명화 외, 2008), 전반적으로 노인의 자립성에 기인한 선택이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는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동거 이유와 관련한 기존 응답을 노인 및 자

2) 기혼자녀 동거 가구(9.0%), 기혼자녀+미혼자녀 동거 가구(0.3%)가 모두 포함된 값이다.

3) 기존 선택지에서 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개인(부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기존 거주지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해서 단독 가구를 선택한다는 응답을 더한 값이다.

그림 1. 노인의 가구 형태 변화(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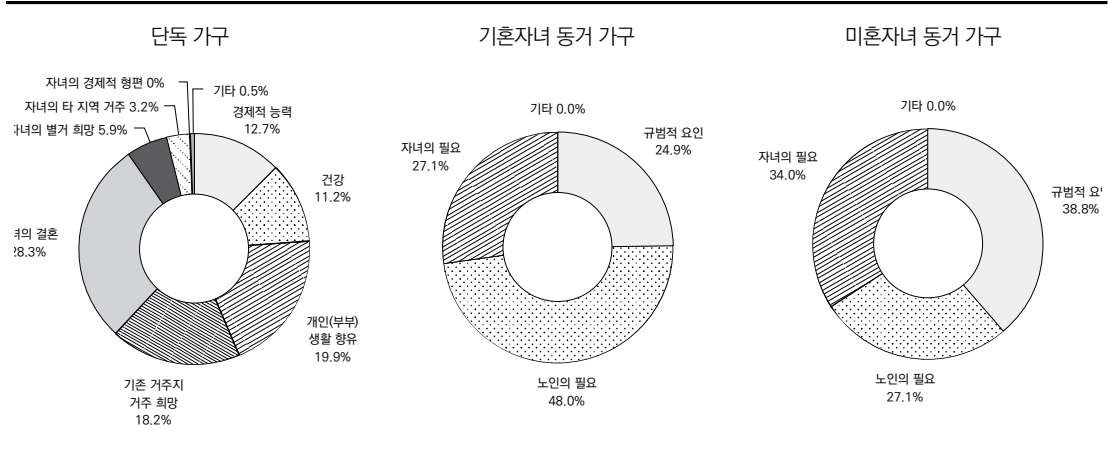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 (표 11-1-1).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표 3-2).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 홍승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8. (표 4-2).
 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7. (표 3-2).

녀의 두 축으로 재범주화해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규범적 요인’, 노인 단독 가구의 외로움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돌봄 필요, 경제적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노인의 필요’, 자녀에게 가사(양육)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자녀의 필요’, 기타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에서는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돌봄 필요, 경제적 능력 부족 등과 같은 노인의 필요성에 기인한 동거가 48.0%, 자녀에 대한 다각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27.1%를 차지하며, 규범적 당위성에 의한 동거는 24.9%이다. 즉 노인과 기혼자녀의 동

거가 상호간의 지원 교환 필요성에 따른 선택적 동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달리 미혼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는 규범적 요인에 의한 동거가 38.8%, 자녀의 필요에 의한 동거가 34.0%, 노인의 필요에 의한 동거가 27.1%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녀와 마찬가지로 노인과 자녀의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 선택적 동거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녀와의 동거에서는 노인의 필요성에 의한 선택이, 미혼자녀와의 동거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에 의한 선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75세 이상의 후기노인(72.0%),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

그림 2. 단독 가구 및 (기혼 및 미혼)자녀 동거 가구 형성 이유



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도식화함.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9. (표 3-6), p. 146. (표 3-11), p. 149. (표 3-15).

인은 75세 미만의 전기노인(66.2%)이 다수를 차지하여 노인-자녀 간 연령대에 따라 지원의 기제와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 관계망의 규모

노인의 주요한 관계망으로서 자녀 및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의 67.1%는 배우자가 있고, 96.8%는 자녀가 있으며, 88.3%는 손자녀가 있다.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79.9%, 81.7%인데, 이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규모 축소로 볼 수 있다. 친한 친구 및 이웃이 있는 노인은 93.6%로 나타났다. 규모는 자녀 3.0명, 손자녀 4.1명, 형제자매 2.9명, 가까운 친인척 2.1명, 친한 친구 및 이웃 3.0명이다. 이 가

운데 동년배 관계인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및 이웃의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가까운 친인척이 있는 노인이 46.2%, 친한 친구 및 이웃이 있는 노인이 57.1%였으며, 평균 수는 각각 0.8명, 1.4명이었다. 동년배 관계는 구조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관계로서(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 2019), 노년층의 전반적인 자율성 강화와 맞물려 최근 이 같은 관계가 노인에게 주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노인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노인의 삶에 다양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관계의 확대가 기여하는 바는 클 것으로 예견된다.

표 1.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규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및 이웃
보유(%)	67.1	96.8	88.3	79.1	81.7	93.6
평균 수(명)	-	3.0	4.1	2.9	2.1	3.0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57-158. <표 4-1>, <표 4-2>를 재구성함.

3. 노년기에 주요한 관계망과의 접촉 및 지원

노년기에 주요한 관계망과의 기능적 교류를 접촉 실태와 지원 교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접촉 실태에서는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을 중심으로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관계망과의 역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 10년간(2011년, 2020년)의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지원 교환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흐름에 주목하기 위하여 배우자, 동거·비동거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원 영역은 고민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 가사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원, 신체활동 도움과 같은 수발 지원, 현금·현물 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배우자는 경제적 자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파악은 제외하였다.

가. 접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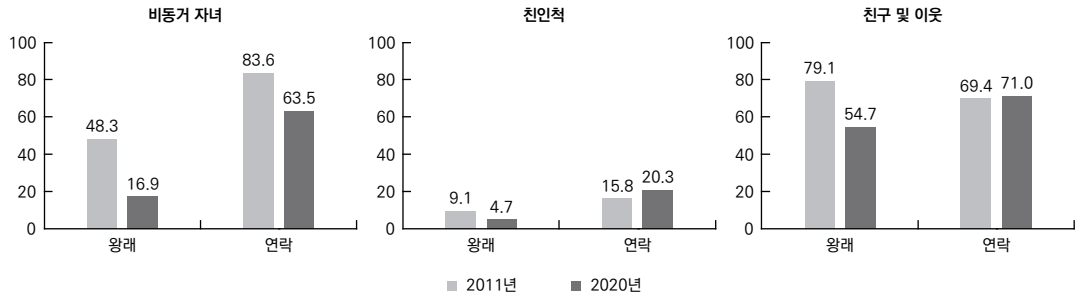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실태에서 노인의 2.5%는 거의 매일 자녀와 왕래하고 8.2%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주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의 16.9%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63.5%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1년 조사에서 일주일 1회 이상 왕래 비율이 48.3%, 연락 비율이 83.6%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최근 들어 이 같은 교류 빈도가 점차 잦아들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접촉 방식에서는 직접적인 만남보다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이 중심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년에 한두 번 혹은 거의 접촉이 없는 경우는 왕래가 17.9%, 연락이 3.7%로, 2011년 조사의 5.2%, 1.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친인척과의 접촉 실태는 앞서 살펴본 자녀의 경우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은 0.7%, 연락하는 비율은 2.0%로 극히 낮으며, 대다수는 연 1~2회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에서도 이 같은 경향성은 유지되나, 왕래 빈도 비율에 비

4) 단, 조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만남이 어려웠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주 1회 이상 기준)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6. <표 4-5>, p. 167. <표 4-6>, pp. 181~187. <표 4-13>~<표 4-16>을 재구성함.

해서는 높아 다수가 월 1회 이상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자녀 접촉 실태와 달리 접촉 방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즉, 직접 대면을 통한 왕래 빈도 비율(주 1회 이상)은 9.1%에서 최근 들어 차츰 감소하고, 연락 빈도 비율(주 1회 이상)은 15.8%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다. 친인척 역시 노인과 비슷한 연령대임을 감안할 때, 물리적 이동을 통한 왕래보다는 좀 더 수월한 방식의 연락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54.7%는 주 1회 이상 왕래하며 71.0%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접촉 빈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친인척 접촉 실태와 마찬가지로 왕래 빈도 비율(주 1회 이상)은 79.1%에서 최근 감소 추이를 보이며, 연락 빈도 비율(주 1회 이상)은 69.4%

에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연락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노인들도 동년배와의 간접 접촉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적 관계망에 비해 친구 및 이웃과는 비교적 적극적인 수준으로 왕래가 유지되고 있다. 공통의 관심사 또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라는 점에서 보다 자발적인 관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가족과의 지원 교환

노인의 85.6%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84.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은 79.9%의 수혜율과 76.6%의 제공률을 보이며, 수발 지원은 62.7%의 수혜율과 62.3%의 제공률을 보인다. 즉 유배우 노인은 배우자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발 지원 순으로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노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이를

재분석한 결과, 가사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적 지원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 수혜율 및 제공율에 격차가 있다. 남성 노인은 배우자인 여성 노인에게 91%가 도움을 받고 68.7%가 도움을 주는 반면, 여성 노인은 배우자인 남성 노인에게 66.1%가 도움을 받고 86.3%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여전히 가사 지원을 여성의 역할로 간주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차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과 자녀 간의 지원 교환 실태를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77.9%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65.3%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도구적 지원은 75.3%의 수혜율과 68.9%의 제공률을 보이며, 수발 지원은 49.9%의 수혜율과 29.5%의 제공률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적 지원에서는 노인의 87.1%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36.1%만이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현물에서는 노인의 80.0%가 자녀에게 지원을 받은 반면 41.8%는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유형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수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다.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서는 노인과 자녀 간 쌍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수발 지원은 노인의 기능 상태 제약으로 인한 간병, 병원 동행 등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노인의 수혜 중심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은퇴 이후 장기간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원 종류(현금, 현물)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대두된다.

다음으로 비동거 자녀와의 지원 교환 실태를 동거 자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녀의 제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은 유사하나 전반적인 지원 교환 수준은 동거 자녀에 비해 낮다. 이는 노인-자녀 간 물리적 근접성의 차이로 보인다. 즉,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자녀가 비동거 자녀에 비해 부모(노인)의 즉각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교류 역시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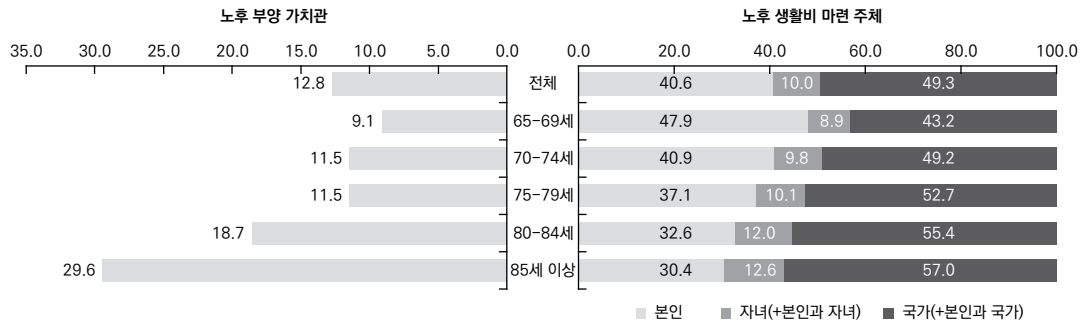
4. 노년기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가치관

노년기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태도를 부양 가치관 및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노후 부양 가치관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전체의 12.8%만이 동거를 희망하였다. 앞서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 기인한 선택보다 노인-자녀 간 상황적 요인에 따른 선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준하여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규범적 동거 희망률을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65~69

그림 4. 노후 부양 가치관



주: 왼쪽 그래프는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오른쪽 그래프는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를 뜻함.
 자료: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5. <표 5-32>, p. 258. <표 5-33>을 재구성함.

세 노인은 9.1%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29.6%로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고령 후기노인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할 뿐 아니라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유지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적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고,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27.0%, 사회보장제도 22.3%, 본인과 자녀 5.3%, 자녀 4.7%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스스로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여 주체적으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 앞서 살펴본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자립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라는 응답은 65~69세 연령집단에서 47.9%로 가장 높다.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사회보장제도(또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다.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보전이 어려운 고령 후기노인에게 소득보장제도를 비롯한 공적 개입을 통한 노후 생활비 마련이 더 필요함을 뜻하는 결과이다.

5. 나가며

노인에게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는 생애과정을 통해 축적된 결과물로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정체성 확보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노후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

라서 노년의 삶을 조망할 때 관계망의 구체적인 양상을 짚어 보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글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형태, 규모)과 기능적 측면(접촉 실태, 지원 교환), 인식적 측면(가치관)에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 노인만으로 구성된 단독 가구(독거 및 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 대상 노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감소세가 뚜렷해져 전통적 확대가족의 형태인 노인-기혼자녀 간 동거 가구는 9.3%에 그쳤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대다수가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보다는 노인-자녀 간 필요에 의한 실용적 목적의 동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만으로 구성된 단독 가구는 노인(또는 부부)의 욕구 또는 자립적 요인(경제, 건강)에 따라 현재의 가구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단독 가구가 노년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고착되는 것은 물론, 현재보다 더 유연하고 기능적인 관계로 노년기 가구조가 변모할 것으로 예견된다.

나아가 주요한 관계망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가까운 친인척을 비롯하여 친한 친구나 이웃과 같이 노인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년배 관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자녀를 포함한 혈연관계의 축소는 불가역적이나, 동년배 관계는 개인의 능동성, 주

체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계망의 항상성 측면에서도 혈연관계의 축소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대체 자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상은 접촉 실태에서도 이어진다. 즉,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관계 간의 교류는 시계열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친인척,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는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접촉 방식에서는 관계망의 전 유형에서 왕래보다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연락 중심으로 변화하는 공통된 경향성이 발견된다. 다양한 연락 수단이 교류의 매개체로 보편화되었다는 점과 노인들이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역시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과의 지원 교환은 기능적으로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결부된다(정순돌, 이루리, 2014, p. 29). 구체적으로 노인-가족 간 지원 교환은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순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우자와는 다양한 차원에서 쌍방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가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구적 지원은 여성 노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와의 지원 교환은 대체로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며,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거 자녀가 비동거 자녀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모(노인)와 더 활발한 지원 교환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부양과 관련한 가치관 역시 앞서 구조적, 기능적 차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와의 규범적 동거 희망률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노인 10명 중 약 1명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였다. 나아가 노후 생활비 마련에 관해서는 본인 스스로 또는 사회보장제도와의 협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반적으로 자립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노년층의 변화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기능적·인식적 차원에서 나타난 변화와 주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경향성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만으로 구성된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노년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외부와 적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한 독거 또는 고령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보건복지부, 2020, p. 8)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후기 노인으로 구성된 단독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의 가용성 감소에 대비한 공적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규모뿐 아니라 자녀와

의 교류 또는 지원 교환과 같은 기능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는 곧 관계 자원으로서의 가족 역할이 축소됨을 뜻한다. 이 같은 변화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적 서비스 강화가 요구되며, 기존 사적 관계망과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년배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가 혈연 중심이 아닌 이차적 비공식 관계로 다각화됨을 고려하여, 노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확대 및 콘텐츠 보급,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적 차원에서 노년기의 독립적 생활을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도 단독 가구 비중 증가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한 가치관에 상응하도록 노년기 이전부터 노년기 변화 양상에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 사회활동 참여 등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김혜령, ... 송준아. (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 (2020).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이루리. (2014). 중장년층, 노년층의 노화인식과 세대간 결속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25-42.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 (2019). 노년학. 서울: 신정.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Familie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the Older Koreans

Lee Sun 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of older Koreans and to present ways to respond to current trends in chang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ing on changes in the structure, function, and perceived value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have been general increases in households made up of seniors only, a redu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 diversification of the peer relationship network, and increases in the perceived value of independent life in old age. Based on its findings, this article recommends to strengthen policy attention to seniors living alone or in couples, strengthen the public care system, support the promotion of peer relationships among seniors, and help individuals and society prepare for old age.